

(사)에너지밸리포럼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서 첫 정례 포럼

“지역 주력산업에 에너지 신기술 접목을”

〈철강·전자·기계·화학〉

한전 등 에너지 관련기업
전문가 등 200여명 참여
‘정보교류의 창’ 기대



문재도 교수가 18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내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에너지밸리포럼 사무국 제공>

“저유가 시대를 맞아 철강, 전자, 기계, 화학 등 주력산업의 생산 공정에 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18일 (사)에너지밸리포럼(대표 이재훈)이 주최한 정례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재도(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울대 교수는 저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내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 에너지 관련 기업,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향후 포럼이 정보교류 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포럼에서 문재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정책과 시장 여건 속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를 조망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에너지산업 변화에 발맞춰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적기

다”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완결할 때 시켜 ‘에너지 대청소’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전 등 최고의 에너지 관련 역량이 자리 잡은 광주·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의 여건과 잠재력은 세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협력사가 이미 투자하는 전문 비즈니스포럼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개월에 1회씩 정례 포럼을 열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에너지관련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장림총회와 창립대회를 연대 이어 이날 첫 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포럼은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을 위한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하고 에너지밸리를 대표하는 전문 비즈니스포럼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개월에 1회씩 정례 포럼을 열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동향, 신기술 전망과 신사업 정보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사)에너지밸리포럼 관계자는 “미니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며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0.43 (+12.82)	금리 (국고채 3년) 1.35% (0.00)
↑ 코스닥 660.29 (+0.46)	↓ 환율 (USD) 1129.40원 (-8.50)

정부, 저축은행 대출도 쪼다

가계대출 급증 6월말 16조6천억원...대출심사 강화 검토

최근 들어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이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규제 및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최근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하는 동시에 건전성 약화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연체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히 수행할 수밖에 없게 돼 대출 증가속도가 제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가계 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14곳을 상대로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과 대출모집인 영업관행을 두고 현장 감사를 벌여왔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지, 대출모집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지 않는지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라 건전성 감독 기준과 영업행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이후 가계 신용대

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급격하게 늘려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2014년 2분기 27조6천억원으로 줄었던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올해 6월 말 현재 3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6조6000억원(42%)이다.

실제로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비(非)금융지주계열 대형 저축은행이 중심이 돼 가계 신용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연 10%대 중금리 대출보다는 20%대 고금리 대출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대부업계 저축은행 현황 및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대부업 계열인 OK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건수 28만9천건 중 23만1천건(80%)이 연 2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다른 대부업계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도 전체 가계대출 건수 22만5000건 중 19만9000건(88%)이 금리 연 20% 초과 대출이었다.

연합뉴스

갤노트7 협력사 70여곳 3천억원 지원 광주 인쇄기술 대상 ‘종이새 피ewing’

삼성전자 지원 방안 발표

삼성전자가 18일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 70여곳의 재고를 전액 보상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물량을 맡기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이 보유한 완제품 재고뿐만 아니라 반제품 재고, 생산을 위해 준비한 원부자재 등 재고 물량을 전액 보상하기로 하고, 전남 협력사들에 통보했다.

갤럭시노트7 관련 삼성전자 협력사는 70여곳, 삼성전자가 부담할 보상액은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자업계는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으로 ▲완제품 재고는 납품 단가 전액 보상 ▲생산 중인 반제품 상태의 재고는 진행 상황에 따른 공정 원가를 계산한 전액 보상 ▲원부자재는 협력사 구매 단가 전액

을 보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별 보유 재고를 파악한 뒤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다른 스마트폰 물량 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협력사가 이미 투자한 갤럭시노트7 전용 설비도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1차 협력사이며, 보상이 2~3차 협력사로 이어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박중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매팀장(부사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협력사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 협력사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다지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제2회 광주 인쇄기술경진대회 대상에 문화디자인(대표 이경희)이 출품한 ‘종이새 피ewing<사진>’이 뽑혔다. 18일 광주디자인센터(박유복 원장)에 따르면 인쇄기술 경진대회 심사 결과, 대상작을 비롯해 20개 업체 2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광주 인쇄인의 날 행사’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인쇄기술 경진대회는 동구 서남동 등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10인 이하 인쇄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제품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5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우수상에는 ▲출셋 등 인쇄분야 맥스타(대표 김동욱) ▲후가공 분야는 삼일문화사(대표 나홍식) ▲제본제책분야는 대한인쇄(대표 정형숙) ▲디자인은 하나디자인(대표 이희숙) ‘차기포카야양’ 등이 각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종로인쇄(대표 김중훈) 등 5개 업체가 장려상을, 형제인쇄출판(대표 손명식) 등 10개 업체가 입선에 선정됐다.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쇄기반 아이디어 상품 중 심신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많아 지역의 인쇄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면서 “종이새 피ewing은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들어 창의성과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中企 융합대전서 두각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중소기업청장 표창 휩쓸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19일 서울 DDK 호텔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광주지역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고려트론이 기술융합·사업화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류·협력분야에서는 ㈜윌드플러스전자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다미인과 ㈜에이엔지지니어링은 기술융합·사업화 분야에서 중소기업청장표창 대상기업으

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융합저변을 확대하고 교류·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다.

올해로 3회째인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3S(Speed, Scope, System impact) 융합경쟁 확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융합대전에서는 교류·협업 우수 사례 전시회와 경진대회, 수출상담회, 유공자 포상 등도 진행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초당요양병원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친절한 믿음의 병원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치매/뇌졸중(중풍)/호스피스/당뇨/고혈압/각종노인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97-2

☎ (061) 453-4300

FAX (061) 453-1119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계약금 5% 내집마련 (0.01%~0.02% 후원금)

분양문의 351-4610 (062)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